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 연말·연초 관계로 42호는 '23.1.12일에 발간됩니다.



최신 GVC 해외 이슈

【반도체, 미국·중국】 美, 중국군 현대화사업 제한 위해
중기업 36개社 수출통제 목록(Entity List)에 등재

【식품·의약품, 중국】 방역 품 中, 민간요법 관련 식품
및 의약품 사재기 현상

【對러 제재, EU】 EU, 비료 제재 면제 관련 진통
끝에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니켈, 미국·러시아】 美, 러시아 니켈 재벌 포타닌 제재
자산 핵심인 니켈·팔라듐 생산업체 '노르니켈은 제외

【에너지,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신설 계획 구체화

【에너지, EU】 EU 태양광산업연맹(European
Solar PV Industry Alliance) 출범

【LNG, 러시아·일본】 러시아,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
'북극 LNG-2' 생산 LNG, 내년 말부터 일본 공급 전망

【탄소중립, EU】 EU, ETS 개혁 등 'Fit for 55'
패키지 핵심 법안 최종 합의 여부 주목



GVC 뉴스 더하기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주요 이슈와 대응



GVC 기초상식

대한민국 입법절차 2편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GVC 돌보기

석유산업 2편 - 석유 탐사·개발·생산·운송



GVC 전문가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2021년 기준) 결과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동 발표(12.6)



더 찾아보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초대 편집인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은 과장 인터뷰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상시 지원 사업 안내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신 GVC 해외 이슈

■ **[반도체, 미국·중국] 美, 중국군 현대화사업 제한 위해 中기업 36개社 수출통제 목록(Entity List)에 등재**

-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개정해 양쯔메모리 등 36개 中 기업을 별도의 허가 없이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
 - 12.16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 대해 美 상무부 앨런 에스테비스 산업안보 차관은 “군사 현대화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등 강력하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 활용 능력을 제한해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지난 10.7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통제 방침이 발표되며, YMTC 등 중국기업 31곳이 미검증 기업 목록(UVL)에 등재. 이번 수출통제 목록에는 기존 중국 UVL 기업 중 25개社는 제외
 - 당시 美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60일 안에 자사 제품 최종 소비자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무역 제재 대상인 수출통제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캄브리콘 등 AI 기술 개발 기업 21개社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되며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할 경우 수출이 금지됨
- 이달 초, 中 상무부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을 감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두 국가의 갈등이 잠시 풀리는 듯했으나, 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점점 격화되는 중
 - 앞서 美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억제를 목표로, 미국 기업의 18nm 이하 D램, 128단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 칩 등을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 이에 中 상무부는 12.11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WTO에 소송 제기
 - 중국은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1조 위안(약 186조8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美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제한 조치에 동참하여 관련 조치 발표 예정

출처: 매일경제(22.12.16), 조선일보(22.12.1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식품·의약품, 중국] 방역 품 中, 민간요법 관련 식품 및 의약품 사재기 현상**

- 제로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로 비공식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감기 치료에 능통한 민간요법’이란 명목으로 황도 통조림, 식초, 레몬 등 식품을 비축하는 ‘패닉 구매’ 현상 발생
 - 레몬을 이용한 ‘전해질이 풍부한 물 제조법’ 영상 등 확산, 레몬 가격은 기존 2.5위안/kg에서 며칠 새 5위안/kg까지 급등
 - 산동성의 한 공장에서는 지난주부터 황도 통조림 온라인 일일 판매량이 기존 1,000건에서 1만건으로 급증. 이에 중국 최대 통조림 업체 다렌 리션 식품은 SNS를 통해 “황도는 증상 완화에 효과 없으니 비축할 필요 없다”고 당부
- 한편, 약값 폭리를 취한 약국이 베이징 당국에 적발되는 등 의약품 수요급증 현상이 발생하자 홍콩에서도 中 본토 가족·친구에게 약을 보내 해열제가 완판됨. 홍콩 보건 당국은 필요 없는 감기약 구매 자제를 촉구함
 - 홍콩에 상장된 중국 최대 이부프로펜 제조업체 신화약품의 주가는 최근 5일간 60%, 지난 2주간 147% 급등. 당사는 “생산 라인을 100% 가동 중이며 이부프로펜 생산을 위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힘
- 12.17일 WSJ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 화장장(코로나 확진자 시신만 처리)은 24시간 가동하며 기존 대비 6배 가량 증가한 하루 약 200명의 사망자를 처리 중. 이날 중국 당국은 신규 감염자 2,097명, 사망자는 없다고 발표했으나, 12.14일부터 유증상 감염자만 집계되고 있는 상황
 - 12.14일 중국 국유 의약기업 차이나메해코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중국 수입 및 유통을 맡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

출처: 연합뉴스(22.12.19), 한경(22.12.1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對러 제재, EU】 EU, 비료 제재 면제 관련 진통 끝에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 EU 27개 회원국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 방송사 및 광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
 - 이번 합의로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및 카메라·렌즈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추가되며, NTV/NTV Mir 등 러시아 방송사의 EU 면허도 정지
 - 인적 제재 대상이 140명 확대되고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됨
- 이번 논의 과정에서 독일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이 빈곤국 식량안보를 근거로 러시아 비료 수출 관련 제재 면제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진통
 -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6개국은 식량·비료가 직접적인 對러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료 업체를 소유한 일부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인적제재가 비료 수출 차질로 이어진다고 주장
 - 러시아로부터의 비료 공급 감소는 아프리카 등 빈곤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기에, EU 이사회는 15일(목) 식량 및 비료 운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러시아 비료·화학기업 관련 올리가르히 6명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데 합의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2.16)

■ 【니켈, 미국·러시아】 美, 러시아 니켈 재벌 포타닌 제재, 자산 핵심인 니켈·팔라듐 생산업체 '노르니켈'은 제외

- 12.15일 美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신흥재벌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포타닌, 그의 부인과 성인 자녀 2명을 제재한다고 밝힘
 - 이미 영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포타닌의 투자 지주회사인 '인테르로스社'와 그의 호화 요트 '너바나'도 포함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역시 포타닌이 프랑스 금융기업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인수한 러시아 상업은행 '로스뱅크'를 제재하고 국영은행 VTB의 자회사 17곳 역시 제재
- 한편 세계 주요 정제 니켈·팔라듐 생산업체로 포타닌 자산의 핵심인 '노르니켈'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
 - 코발트와 구리까지 생산하는 노르니켈社는 세계 니켈 연간 생산량의 약 5%, 팔라듐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여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재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로이터통신은 포타닌이 소유한 노르니켈의 지분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고 보도
 - 니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부품, 팔라듐은 촉매변환기와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가의 희소금속임

출처: 로이터통신(22.12.16), 연합뉴스(22.12.1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에너지,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바르셀로나-마르세유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신설 계획 구체화

-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는 12.9일 남부 유럽 정상회담에서 바르셀로나-마르세유를 잇는 해저 파이프라인 (H2Med, 프로젝트 명칭을 BarMar → H2Med로 변경) 추진계획을 발표
 - 지난 10월, 3국은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 녹색수소 운반 및 에너지 전환기 천연가스 수송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수소 전용 인프라로 활용하기로 결정
 - 프로젝트 비용(25억 유로) 절반을 EU기금으로 지원받기 위해 12.15일까지 기금 신청 후 '23년초 지원 여부 결정 예정
- '30년부터 가동, 유럽 수소 소비량의 10%를 운반할 계획
 - EU는 '30년까지 역내 재생가능 수소 1천만톤 생산 및 1천만톤 수입 목표
 - EU 집행위원장은 또한 12.9일 성명서를 통해 동 프로젝트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남부 지중해 국가들과의 수소 파트너십 구축 계획 발표(EU-이집트와 수소 파트너십 체결 완료, 현재 모로코와 파트너십 논의 중)

출처: EU집행위(22.12.9) 및 FT(22.12.9)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에너지, EU] EU 태양광산업연맹(European Solar PV Industry Alliance) 출범

- EU는 12.9일 태양광산업 역외 의존도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산업연맹을 공식 출범함
 - SolarPowerEurope, ESMC(European Solar Manufacturing Council) 및 EU집행위 주도로 태양광산업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구축
 - REPowerEU 태양광에너지 목표(태양광 발전용량 '25년 320GW → '30년 600GW) 달성을 위한 제조시설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고, 태양광 발전소를 현재 4.5GW급 → '25년 30GW급으로 확대·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연합 내 완전한 태양광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전 세계 태양광 PV(PhotoVoltaic,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햇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의 80%는 중국기업이 담당하고 핵심원료(폴리실리콘, 잉곳)의 中 점유율이 곧 9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 가능한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
 - (투자촉진)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PV 제품 개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추진으로 민간 투자 유치 촉진
 - (산업활성화) △허가 절차 간소화, △원자재 공급·노동력 및 기술 부족 어려움 해소, △지속가능·순환성 강조, △조달시장 활용 수요 창출 등
 - (공급망 다각화) 의존도 개선 위해 대체공급망 발굴 및 파트너십 체결 등

출처: EU집행위(22.12.9) 및 언론보도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LNG, 러시아·일본] 러시아,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 '북극 LNG-2' 생산 LNG, 내년 말부터 일본 공급 전망

- 12.14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가 추진 중인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 '북극(ARCTIC) LNG-2' 프로젝트의 첫 생산 시설이 내년 연말부터 본격 가동돼 일본으로 LNG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
 -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이뤄지는 이 프로젝트는 총 3개의 생산시설로 구성. 연간 660만t의 LNG를 각각 생산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생산시설을 내년 12월, 나머지 두 개 시설은 각각 '24년과 '26년부터 가동 계획
- 러시아 민간 가스기업 노바테크社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토탈에너지社와 中 국영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일본의 미쓰이社 등이 참여 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EU 등 서방국의 제재로 토탈에너지社가 단계적 철수를 계획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
 - 노바테크社 측은 “서방국가들의 對러시아 제재가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3년 정도면 장비를 국산화하는 등 제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힘
- 일본은 해당 프로젝트 본격 가동시, 매년 200만t의 LNG를 확보할 전망. 이 외에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할린-2'에도 참여하고 있어, 생산 LNG의 약 60%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중
 - 미하일 갈루진 주일 러시아 대사는 “북극 LNG-2 프로젝트로 일본의 가스 수입 중 러시아산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

출처: 조선일보(22.12.14) 등 언론보도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종합

■ [탄소중립, EU] EU, ETS 개혁 등 'Fit for 55' 패키지 핵심 법안 최종 합의 여부 주목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2.16일(금)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 내용인 'EU 배출권거래제도 개혁(EU 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법안 최종 타협안 협상을 실시함
 - ① EU 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 관련 최대 쟁점은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시기 및 속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3자협의(trilogue)에서 이와 관련한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 ②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탄소배출 비용이 높아진 EU 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는 무료배출권 할당 유지, 수출환급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③ 사회기후기금(SCF)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취약 가계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협상에서 규모 및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2.16)



GVC 뉴스더하기 :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주요 이슈와 대응

◆ 여러 이슈들로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이 컸던 2022년, 여전히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과 그에 대한 주요국·권역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자

■ 2022년 공급망 관련 주요 이슈

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2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하였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며 계엄령을 선포하여 러-우 전쟁이 시작됨
 - 푸틴 대통령은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돈바스 주민 보호이며 이에 간섭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
- 서방의 對러시아 금융, 무역 제재 등 파급효과로 천연가스, 원자재 등 러시아 주요 생산·수출 품목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가격이 상승,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

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과의 교역규모 (21년)	우리나라 전체 교역(12,595억 달러)의 2.2%(273억달러) - 수출 9,980백만 달러, 수입 17,357백만 달러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0.07%(9억달러) - 수출 581백만 달러, 수입 309백만 달러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등 용도의 팔라듐 · 이차전지용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 · 철강제품 제조시 탈산제 등 용도의 페로실리콘	· 반도체 소재인 희귀가스 크립톤, 제논 · 사료용 밀, 옥수수 등 곡물

②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動態清零)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의 방역통제·봉쇄 등을 시행하여 상하이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다수지역이 동시에 섯다운되는 상황 발생
 - 3월부터 시작된 상하이, 쑤저우, 선전, 창춘, 산둥 웨이하이, 베이징 등 도시의 전면·부분 봉쇄가 5월 말까지 장기화. 9월초에는 청두·선전 전면 봉쇄 등 연중 상시 확진자 발생지역 섯다운이 이뤄짐
- 지방정부의 도로 차단 등 방역 활동에 따른 물류난, 섯다운에 따른 항구 운영 정체 및 주요 산업 제조시설 생산 차질 등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혼란 심화
 - (도로 차단 물류난) 각 지방 정부들이 톨게이트·휴게소 운영을 중단하여 중국 내륙 물류 차질로 4월 주요 성시 도로 화물 운송량 급감 [상하이 △72.3%, 베이징 △21.4%, GDP규모 1, 2위 지역(省)인 광둥, 장쑤 각각 △11.4%, △48.3%, 중국 전자상거래 허브인 저장성 △10.4%]
 - (항구 운영 어려움) 세계 최대컨테이너 항구 상하이항, 코로나 봉쇄로 4월 컨테이너 물동량 17.2% 급감, 이에 중국 4월 수출 증가율 크게 둔화 [3월 14.7% 대비 10.8%p 줄어든 3.9% 기록, '20.6월 이후 최저치]
 - (주요 제조시설 생산 차질) 4월 중국 자동차 생산량 120.5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46.1% 급감. 전국 자동차 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상하이와 지린 봉쇄가 주요 원인. 애플의 아이폰 최대 조립업체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은 폐쇄 루프 방역 시스템으로 생산 차질, 올해 아이폰 생산량 감소 규모는 600만대에 이를 전망
- 한편 12월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로코로나 방역 완화를 시사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이 명확한 흐름이 된 듯한 양상

③ 미-중 패권 경쟁

- 중국 신장지역 인권문제에 따른 미국의 신장産 수입금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중국의 대만 압박 등과 맞물려 미-중 갈등이 심화,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 위기에 직면
 - 미국은 신장 인권문제에 대응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정을 통해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22.6.21일부 시행)했으며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
 - 또한 대만 이슈도 단순히 군사안보적인 차원을 넘어 미국에게는 반도체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어 양국관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

■ 주요국·권역의 대응

- 미국, EU를 필두로 일본, 중국 역시 자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안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강화

국가·권역	법안 및 정책	주요 내용
미국	초당적 인프라법	·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재건' 목표의 인적·물적 인프라 투자계획을 포함한 법안 (21.11.15 입법) - 전기차 첨단소재·배터리 제조, 재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5년간 12조 달러 투자
	반도체 지원법	· 미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 및 중국 영향력 억제에 위한 법안 (22.8.9 대통령 서명) - 미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신축·확장·보수시 보조금 최대 30억 달러 지급, 설비투자 세액공제 25% 등 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	· 배터리 부문, 중국 영향력 억제 조치들이 포함된 법안 (22.8.16 대통령 서명) - 북미에서 최종 조립, 우려 외국 법인 관련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적격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등
	바이오 제조혁신 이니셔티브	· 미국내 바이오산업 관련 국내 생산 지원을 강화하는 행정명령 (22.9.12 대통령 서명)
EU	공급망 실사지침	· 인권·환경 관련 기업 활동의 전 공급망에 걸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또는 완화·제거 조치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 EU이사회 견해 확정, '23년 5월 경 유럽의회 입장 확정 이후 최종 법안 도출 예정
	단일시장 긴급조치	·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회원국간 수출제한 조치, △회원국의 필수 상품·서비스 비축, △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상품 재고 등 정보요구 및 우선공급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단일시장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 - '22.9월 EU집행위가 제안, 향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법안 심의 및 채택 필요
	핵심원자재법	·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법안 - '22.11.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3.1분기 법안 발표 계획
	반도체법	· 유럽 내 반도체 공급난 해결과 기술 자립을 위한 법안 (12.1일 EU이사회 일반적 접근 채택, 유럽의회 입장 확정 이후 최종 법안 도출 예정) - '30년까지 430억 유로(한화 약 59.5조 원) 규모의 민간 펀드 조성 예정
일본	경제안전 보장법안	·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구조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①공급망 강화, ②기간 인프라 안전성 확보, ③첨단기술 민관협력, ④특히 비공개 분야로 구성 (22.5월 법안 통과, '23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중국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직후 정책과제 발표	· 시진핑 주석 "새로운 자원 배치체계를 구축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체계 전반의 효율을 제고하겠다"고 강조 - '식량안보', '안전한 자주형 공급망 구축', '기술자립' 등 안보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및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재편 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통해 개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나선
 - (공급망 기본법) 새정부 국정과제로 일반적사항(위험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10.17일 발의)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법률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재정·세제·규제특례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민간비축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센터 지정 등 조기 정보분석 기능 보강(9.30일 발의)
 - (납품대금 연동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반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12.8일 국회 통과)

GVC 기초상식 : 대한민국 입법절차 2편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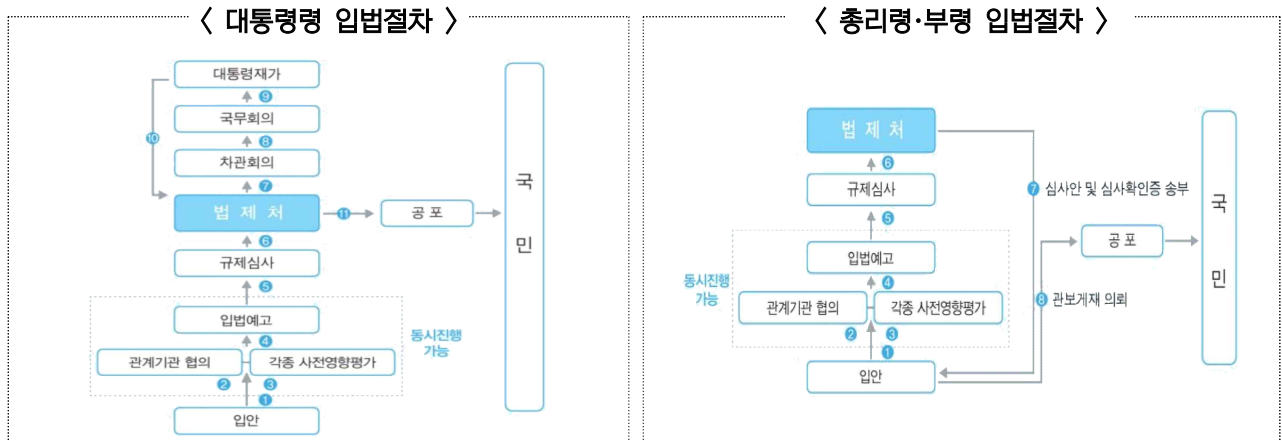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뉜다. 전편의 법률 입법절차에 이어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입법절차 시리즈〉

37호: 법률의 입법절차

38호: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입법절차 개요



■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 (행정기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①대통령령안(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므로 **시행령**이라고도 함)을 마련하여 ②**관련기관 의견수렴**과 동시에 ③**각종 평가**(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등) 요청
- (입법예고) ④대통령령안을 국민들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⑤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대통령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음
- (법제처심사) ⑥입법 주관기관의 장이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 자구·체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함
-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법제처 심사를 마친 대통령령안은 ⑦**차관회의** 및 ⑧**국무회의의 심의·의결** 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⑨**대통령 재가** 후 **국회의 심의 없이** ⑩**법제처에 회부**되며 ⑪**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함

■ 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 (행정기관) 총리령·부령은 법률·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도 하며 총리 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 함
- (입법예고·법제처심사) ⑥**법제처 심사의뢰**까지의 절차는 대통령령과 같으며, 총리령과 부령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지 않음**
- (공포) 법령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로부터 심사안, 심사확인증을 송부받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
 - 총리령의 경우, 심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며 부령의 경우 행정 각 부의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부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번호를 받아 공포

GVC 돋보기 : 석유산업 2편 - 석유 탐사·개발·생산·운송

- ◆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OPEC+ 원유 감산 결정(10.5) 등으로 국제 유가 및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인 석유에 대해 알아보자

〈석유 산업〉

40호: 석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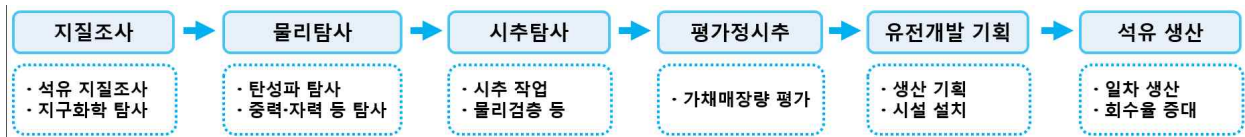
41호: 석유 생산·운송

42호: 석유 정제·활용

■ 석유 탐사

- 석유매장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표면 암석분포 조사, 지구물리학자의 정밀조사 등을 통해 유망지역을 선정하고, 탐사공 시추 등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석유의 존재여부 확인

〈석유 탐사·개발·생산 프로세스〉



- ① (지표지질조사)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항공사진이나 원격탐사자료 활용, 습곡·단층·균열대 직접 탐사 등을 통해 퇴적분지 형상, 근원암, 저류암 발달 상황 등을 분석하여 유전 형성 가능성 추정
- ② (물리탐사) 탄성파탐사, 중력·자력탐사, 전기탄성파탐사, 3D·4D 탄성파탐사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국지적인 중력 또는 자력의 이상 변화를 측정하여 지하 지질구조, 부존자원 등 탐사
- ③ (시추탐사) 물리탐사 결과에 따라 부존자원의 위치, 규모와 성질 등이 추정되면 추가적으로 지하에 직접 구멍을 뚫어 암석샘플 채취, 분석 등을 통해 정밀한 지하정보 획득
- ④ (전자탐사) 해양전자탐사는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해양탐사 방법 중 하나로 기존 탄성파탐사로 확인된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전기장·자기장을 활용해 석유·가스의 부존 특성을 탐지하는데 활용

■ 석유 개발

- 석유 탐사를 통해 석유가 발견되면 개발단계로 전환되며 유전 평가, 생산정 시추, 생산설비 설치 (크리스마스트리*, 해상플랫폼** 등) 등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

* 석유의 생산량 조절 및 온도·압력 측정 등을 위해 생산정 시추공 입구에 설치하는 장치

** 해상 플랫폼은 바다의 깊이, 유전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설치되며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플랫폼은 25층 건물 높이에 축구장보다 크며 500여명의 생산 기술자들이 상주하기도 함



〈육상 유전〉



〈해상 플랫폼〉

■ 석유 생산

- 지하 원유 회수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원유 생산 후 폐공처리 진행 및 생산물을 가공하는 과정까지 포함
- 유전(Oil Field)에는 원유와 함께 존재하는 수반가스가 산출되며 가스만 매장된 가스전(Gas Field)도 있음
→ 기체상태인 천연가스(Natural Gas)와 내부 압력으로 가스가 액체로 변한 콘덴세이트도 생산

- ① (1차 회수) 생산 초기 석유나 가스 밑에 깔려있는 물의 압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석유는 전체의 20% 내외에 불과하며 생산이 계속될수록 유층 내 압력이 줄어들어 생산량도 감소
- ② (2차 회수) 자연유출되지 않는 석유는 펌프로 퍼올리거나, 물·가스 주입, 화학물질 활용 유동 장애요인 제거, 부존층을 수압파쇄하여 유출통로를 확장하는 등 증진회수법으로 생산량 촉진
- ③ (불순물 제거) 지표로 올라온 석유는 가스와 물이 혼합되어 있어 가스와 물을 분리해 탱크에 일시 저장한 이후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운송

※ 원유의 종류와 품질

- 원유는 탄소함량이 80~86%, 수소 12~15%, 기타 원소(황, 질소, 산소) 1~3% 등으로 구성되며 생산지와 산출되는 유층에 따라 성분과 품질이 상이
- API 비중에 따라 중질유(重質 : Heavy Oil), 중질유(中質 : Medium Oil), 경질유(輕質 : Light Oil), 황함량에 따라 저유황(Low-sulphur), 고유황(High-sulphur) 원유로 분류
 - API도(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미국석유협회가 제정한 원유 비중 표시 방식으로 상온(화씨 60도, 섭씨 15.6도)에서의 물의 비중(API 10도)을 기준으로 비중이 가벼워질수록 API도가 높아짐(반비례 관계)

	30	34	
API도	重質 원유 Sour Crude	中質 원유	輕質 원유 Sweet Crude
황함량(%)	고유황 원유		저유황 원유
	2		1

〈유종별 품질 예시〉

	API도	황함유(%)	품질	비고
두바이油(Dubai)	32.0	1.86	中質·고유황	· 아시아 지역 가격결정 기준 원유
브렌트油(Brent)	38.3	0.37	輕質·저유황	· 유럽·아프리카 지역 가격결정 기준 원유
美텍사스油(WTI)	38~40	0.24	輕質·저유황	· 미주 지역 가격결정 기준 원유

■ 석유 운송

- 생산된 원유는 파이프라인·유조선 등을 활용하여 주요 소비지역으로 운송되며, 수송 부문은 하류(Downstream)로 분류되나 최근 관련사업 발달로 중류(Midstream)로 별도 분류하기도 함
 - '21년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는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중국해 등을 거쳐 유조선으로 운송되며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정유공장에 입고하기까지 약 45일 소요
- 유조선은 적재가능한 중량(DWT)에 따라 AFRAMAX, SUEZMAX, VLCC, ULCC 등으로 구분

AFRAMAX	• 운임·선가 등 고려시 최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 사이즈란 뜻으로 8~11만톤급 선박
SUEZMAX	• 원유를 가득 싣고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으로 13~15만톤급 선박
VLCC	• Very Large Crude Oil Carrier는 20~30만톤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
ULCC	• Ultra Large Crude Carrier는 30만톤이 넘는 극초대형 유조선

■ 원유 하역

- 유조선으로 운반된 원유는 하역시설을 거쳐 원유저장탱크로 옮겨지고, 탱크 하단에 설치된 파이프로 물을 뽑아낸 이후 탈염기, 열교환기, 가열로 등을 거쳐 상압증류탑으로 투입



- ① 원유 부두
• 대형유조선에서 원유 하역
- ② 저장탱크
• 원유를 대형탱크에 저장
- ③ 탈염기
• 원유 속의 불순물 제거
- ④ 열교환기
• 제품의 열을 이용해 원유 예열
- ⑤ 가열로
• 원유를 340~380도까지 가열
- ⑥ 상압증류탑
• 비등점 차에 따라 유분 분리



GVC 전문가 :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2021년 기준) 결과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동 발표(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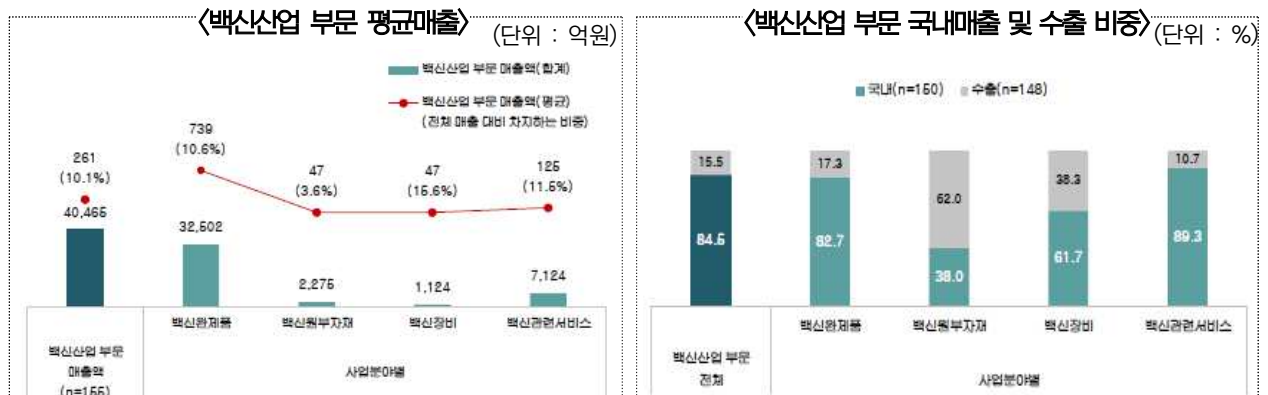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백신산업의 첫 실태조사인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백신산업의 현황을 살펴보자.

■ 백신산업 현황

- (분류) 국내 백신기업은 총 159개사로, 분야별 비중은 ①백신 완제품 29.6%(47개사), ②백신 원부자재 32.1%(51개사), ③백신 장비 15.1%(24개사), ④백신 관련 서비스(위탁생산, 보관수송 등) 35.8%(57개사)임
- (규모)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1%(5개사), △중견기업 26.4%(42개사), △중소기업 70.4%(112개사)로 제조업 전체와 비교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제조업 내 대중소 비중(통계청, '20기준) : 대기업 0.1%, 중견기업 0.4%, 중소기업 99.5%
- (매출) 국내 백신산업 관련 조사기업의 백신산업 부문 매출 규모는 총 4조 465억원이며, 평균 매출액은 261억원, 전체 매출액 대비 백신산업 부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나타남
 - 백신산업의 국내 매출은 총 3조 4,178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2조 6,865억원, △백신 원부자재 865억원, △백신 장비 694억원, △백신 관련 서비스 6,361억원임(중복응답 포함)
 - 백신산업 부문 매출 발생이 있는 기업은 66.7%(106개사)이며, 매출 발생 시기는 '10년 이상'이 42.5%(45개사)로 가장 높았으나 '1년'이라고 답한 기업도 17.9%(19개사)로 상당한 비중 차지
- (고용) 백신기업에 종사하는 인력(백신관련 부서만 포함)은 10,75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별로 △생산직 4,715명(43.8%), △연구직 2,772명(25.8%), △영업·관리 등 기타 3,271명(30.4%)임
 - 조사대상 백신기업 159개사 전체 종사인력은 총 44,312명

■ 백신산업 수출

- 백신산업 수출은 총 6,287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 △백신 완제품 5,637억원, △백신 원부자재 1,410억원, △백신 장비 430억원, △백신 관련 서비스 763억원임(중복응답 포함)
 - 백신 원부자재 분야는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62.0%로 높은 반면, 백신관련 서비스(10.7%), 백신완제품(17.3%) 분야의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수출한 적이 있는 23개사의 수출 대상국은 미국(6개사), 인도(4개사), 중국(3개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각 2개사) 순으로 나타남



자료 : 2021년 기준 국내백신산업실태조사

- 한편, 국내 백신산업 관련 기업의 11.3%(18개사)가 다국적기업이며, 특히 백신완제품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21.3%(10개사)로 높게 나타났음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발표(22.12.06)'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더 찾아보기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초대 편집인 이상은 과장 인터뷰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22.3.3. 창간호를 시작으로 많은 구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22.12.22. 제41호까지 발간함. 연말 특집으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편집한 산업부 이상은 과장을 인터뷰함

-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 3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창간호를 낸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41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간략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은 과장입니다. 금년 초 설 무렵부터 약 6개월간 산업부 실물경제지원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처음으로 구상하고 초대 편집인을 맡아 제19호까지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어서 이제는 편집인이 아닌 독자로서 '인사이트'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서 '인사이트'를 구상해서 만들어보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구성원들 모두 힘내서 즐겁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호주의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DISER)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산업통상 자원부와 접촉하기도 했는데 처음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창간하신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반도체 소재, 와이어링해네스, 요소수 등 공급망 이슈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마-중간의 전략적 경쟁도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요. 무역과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에게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산업부, 무역협회, 코트라가 힘을 합쳐 '22.2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출범하였구요. 저도 산업부의 담당 과장으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분석센터'가 내부적으로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지만 이 중에서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묶어서 '인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나서서 어떤 간행물을 발간하는 데 조심스러운 간부님들도 계셨구요. 매주 '인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으로 의문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이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나갔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기획안을 갖고 다니며 산업부, 무역협회, 코트라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갖고있는 강점을 확인하고 이를 합치는 작업이 재미있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부, 무역협회, 코트라는 대한민국의 실물경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기관들로서 세 기관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작업은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희 세 기관은 소명의식을 갖고 매주 인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이제는 '제작기관이 에너지경제연구원까지 포함하여 4개 기관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저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주중한국대사관에 파견나가서 근무하면서 실물경제와 기업을 많이 접했던 경험이 있었고, 마-중 분쟁, FTA, 자동차, IT, 전력, 원자력 등의 업무를 맡으며 '공급망'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봤던 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 학교 신문사 편집장으로서 신문을 만들어봤던 경험도 이러한 구상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일주일 동안의 많고 많은 공급망 관련 이슈 중 콘텐츠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편집회의'에서 다음주 발간할 콘텐츠를 결정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몇 개의 후보 콘텐츠를 제안했구요. 그 밖에 최근 이슈 중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부, 무역협회, 코트라가 '인사이트'를 각각 1/3씩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나눴구요. 같이 일했던 무역협회, 코트라의 직원분들이 각 기관의 에이스들이셔서 훌륭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집인으로서 '더 생각해보기' 정도 보태는 방식으로 콘텐츠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일했던 무역협회, 코트라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무엇이었나요?

‘인사이트’ 제2호(22.3.10.)에서 제가 작성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콘텐츠가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대응이 상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앞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 우리 공급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바, 사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소재부품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대체공급선 등을 준비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3월 말부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 그나마 미리 예견하고 준비했던 우리 정부와 기관들의 대응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인사이트’ 창간호(22.3.3.)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유튜브 채널 ‘김지윤의 지식 Play’, ‘조승연의 탐구생활’도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사이트’를 통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과의 저녁식사는 그 전과는 달리 글로벌 이슈나 역사 등의 유익한 주제로 대화의 소재가 바뀌어서 ‘인사이트’의 긍정적인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고충이 있으셨나요?

매주 ‘인사이트’를 발간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기관 담당자들에게는 부가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혹사라도 본래 업무로 인해 ‘인사이트’ 발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서 사전에 미리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던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기한 내 ‘편집’과 ‘마감’을 하시는 기자님들의 삶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우리 ‘인사이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인사이트’를 처음 만들고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구독을 희망하는 메일(사연)들을 받아보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인 기쁨과 보람이 크면 이러한 어려움들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금년 7월에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을 가게 되어 혹사라도 우리 ‘인사이트’ 발간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지만, 후배들과 여타 기관들에서 워낙 잘 해주셔서 이제 제41호까지 발간하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사하고 또 흐뭇합니다.

우리 ‘인사이트’는 이제 기업, 기관, 정부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입부한 수습사무관들도 ‘인사이트’를 면접 준비 교재로 활용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실제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들 몇 분도 수업시간에 ‘인사이트’를 교재로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 ‘인사이트’처럼 살아 있는 이슈들을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자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 우리 사회에 적지않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행복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사이트’가 구독자님들의 수요를 잘 받들어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산업부, 무역협회, 코트라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분야의 각종 협회, 연구소들의 협력의 결과물인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많은 도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공급망의 대응역량을 강화해보겠다고 시작한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 구독자 여러분의 칭찬과 응원으로 인해 꺾이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함께, ‘분석센터’와 ‘인사이트’를 위한 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인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분석센터’의 조상현 센터장님과 ‘산업분석실’을 맡고 계신 무역협회 장상식 실장님, 초창기 ‘공급망 모니터링실’을 맡고 계셨던 코트라 이금하 실장님, ‘종합전략실’을 맡고 계신 산업부 실물경제지원반 직원분들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목표를 향해 좋은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발전하는 시간들이어서 참으로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필진과 구독자님들 모두, 우리 경제의 숙명과도 같은 ‘공급망’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전문성도 키우고 서로 더욱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선의의 경쟁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상시 지원 사업 안내

■ 디지털 공급망 실사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 실사 방식(국내 공장 또는 현장을 바이어에 제시) 또는 해외 실사 방식(해외 공장 또는 현장을 국내기업에 제시)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비대면 수출마케팅 상시 지원 사업

- 사업 분류 (아래 예시 이외 디지털 실사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 지원 가능)

구분	국내 실사	해외 실사
1:1	디지털 공장실사, 국제인증 실사 *국내기업 생산시설 비대면 실사	글로벌 공급망 생산시설 조사 등 *해외 원/부자재 공급처 확인
	디지털 ESG 공급망 실사 *지속가능성, 환경, 인권/윤리, 작업장 안전/보건 등 비대면 실사	현지 매장조사 등 *해외 오프라인 매장 등 대리 방문
N:N	국내 전시회 (서울식품전 등) 해외 바이어 대상 디지털 참관	해외 전시회 (CES, MWC 등) 국내 바이어 대상 디지털 참관

- 지원금액 : 전체 서비스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최대 70%), 중견기업(최대 50%) 국고지원
* 수출 바우처 보유 기업은 바우처 사용 가능
- 참가신청 : [디지털 실사\(클릭\)](#) 내용 검토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첨부)디지털 실사 사업 신청 양식에 맞춰 신청기업 정보 기입 후 필수 첨부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신명진 사원 ☎ 02-3460-7642 / myeon9jin@kotra.or.kr

■ GP(Global Partnering) 센터 입주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안착 서비스

- 해외 현지 사무 공간을 제공부터 현지 거점설립 및 맞춤형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착 상시 지원 사업

- 센터 지역별 핵심 지원 분야 및 참가비용 (1개社 당 2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

지역	핵심 지원 분야	형태	입주 부담 금액
나고야	자동차, 항공, 기계	사무실임차형 (무역관 별도 계약 사무실 내 사무 공간 지원)	세부 가격은 별도 문의 요망. 중소·중견기업별 부담금액 상이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항공, 기계		
디트로이트	자동차		
오사카	조선, 전력기자재, 기계		
상하이	자동차, 반도체, 조선	공유오피스형 (무역관 지정 현지 공유오피스 내 사무 공간 지원)	
멕시코시티	자동차		
쿠알라룸푸르	조선해양플랜트		
아테네	조선해양플랜트		
뮌헨	자동차		
실리콘밸리	자동차, 반도체		

* 핵심 지원 분야 외 분야도 신청가능하며,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은 담당자 별도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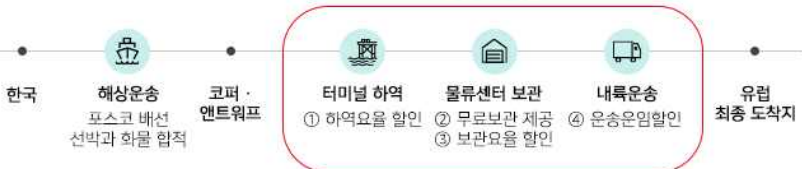


* 사무실임차형 입주 부담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시기에 KOTRA 담당자를 통해 확인 필요

- 선정기준 :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가능성, KOTRA 지원 효과, 수출실적 등 종합 검토
- 참가신청 : [GP센터\(글로벌 공급망 안착 서비스\)\(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GP 센터 입주신청서 및 계약서 양식에 맞춰 기입 후 필수 첨부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최진형 차장 ☎ 02-3460-7650 / choijh@kotra.or.kr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물류 지원 사업

기업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포스코플로우)	<p>[포스코플로우 유럽 물류센터(코퍼·앤트워프)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자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국내기업이 포스코플로우 인프라를 공동이용하는 서비스 <p style="text-align: center;">할인혜택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2022.11~2023.상반기 (잠정, 변동 가능) 지원대상: 국내 모든 수출기업 (포워드 포함)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 (클릭)
 (포스코)	<p>[수출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 제품) or 포워드 가능 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출항지: 포항항/광양항 → 도착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내륙운임은 수출기업 부담)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가입 후 합적 신청 사업안내 (클릭)
 (칼트로지스)	<p>[부산신항 물류센터 수출 컨테이너 일시 보관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물류센터 상하차 및 보관, 물류센터-CY터미널 셔틀 할인가 제공 ※ 수출업체→물류센터 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가능품목: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물류센터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클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5754 (월-금 09:00~18:00) ✉ hjo117@kita.net

[KOTRA]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해상운송]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삼성 SDS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안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12. 21. 수)

[환율]

	'20.12.31	'21.12.31	'22.11.30	'22.12.16	'22.12.19	'22.12.20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318.80	1,305.40	1,302.90	1,289.60	-1.02%	+8.48%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320.10	1,306.10	1,301.40	1,290.00	-0.88%	+8.40%
₩/CNY	166.04	186.51	185.25	186.99	187.31	185.10	-1.18%	-0.76%
₩/Y100	1,051.19	1,032.48	952.61	950.90	958.23	971.89	+1.43%	-5.87%
Y/U\$	103.34	115.14	138.44	137.28	135.97	132.69	-2.41%	+15.24%
U\$/EUR	1,2279	1,1318	1,0345	1,0648	1,0616	1,0598	-0.17%	-6.36%
CNY/U\$	6.5305	6.3681	7.1427	6.9663	6.9775	6.9803	+0.04%	+9.61%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2.19 (전일)	'22.12.20				
					전일(12.19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75.36	75.79	▲0.4 +0.6%	▲25.7 +51.4%	▼1.3 -1.7%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09.20	110.50	▲1.3 +1.2%	▲23.2 +26.6%	▼10.3 -8.5%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331.00	8,302.00	▼29.0 -0.3%	▲546.5 +7.0%	▼1,390.0 -14.3%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327.00	2,329.50	▲2.5 +0.1%	▲378.0 +19.4%	▼476.5 -17.0%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7,525.00	28,400.00	▲875.0 +3.2%	▲12,493.0 +78.5%	▲7,475.0 +35.7%

[반도체]

	'20	'21	'22.9	'22.10	'22.11	12.15	12.16	12.19	12월(~1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2.51	2.41	2.16	2.04	2.04	2.04	2.0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32.7%	-32.4%	-33.1%	-39.0%	-39.9%	-41.2%	-39.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6.57	6.57	6.53	6.53	6.54	6.54	6.5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5.4%	-9.6%	-11.2%	-12.7%	-12.6%	-12.6%	-12.5%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1.25	'22.12.2	'22.12.9	'22.12.16		
						전주(12.9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1229.90	1171.36	1138.09	1123.29	-1.3%	-77.7%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0.31	'22.11.30	'22.12.14	'22.12.15	'22.12.16		
							전일(12.15)비	'21년말비
BDI	2217	1463	1355	1401	1528	1560	+2.1%	-29.6%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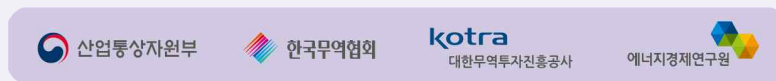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